

제 201 호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

1976. 9. 26.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세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깨어 준비하십시오.

박 종 근 신부

야간 열차로 여행하는 경우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두운 밤의 여행이기 때문에 피로하여 대부분의 승객들은 졸거나 잠에 듭니다. 잠들다 보면 자기가 내려야 되는 곳을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열차 승무원이 열차가 역에 도착하기 전에 차내 방송을 통하여 “○○역이 가까이 왔으니 잠에서 깨어 내릴 준비를 하시오”하고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잠들어 있던 승객들은 이 안내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 여장을 갖추고 목적하는 곳에 무사히 내립니다. 그러나 잠에 푹 빠진 승객은 이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여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하고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위와같은 야간 열차 여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야간 열차가 밤의 어두움속을 달리듯이 우리의 삶도 어두움과 같은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밤의 어두움에 잠들듯이 우리의 삶도 온갖 죄의 유혹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권력 추구와 권력 유지에 잠들어 버리고, 돈벌이에 잠들어 버리고, 쾌락 추구에 잠들어 버리고 생물적인 수명 유지에 잠들어 버리고, 이기적인 명예 추구에 잠들어 버립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안일 무사에 잠들어 버립니다. 하느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옹호하고, 고무하고 진작시키는 대신 경제성장에만 잠들어 버립니다.

잠든 승객을 깨워 무사히 목적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열차 승무원처럼 고맙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온갖 죄에 잠든 우리를 깨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마르코1장)

오늘은 한국 순교복자 대축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를 지니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위에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유혹과 거의 같은 유혹을 겪으셨 으면서도 잠들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로 깨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 선조 순교복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목소리로 잠에서 깨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권력 추구와 유지에만, 안일 무사의 타성에만, 온갖 세상의 사물에 대한 욕망에만 푹 잠에 빠져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잠에 푹 빠진 야간열차의 승객이 겪었던 곤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 곤란은 끝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덕진 천주교회 주임신부>

□시대의 징표□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들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곧잘 어디 가느냐고 묻는다. 두려움에 떨며 로마를 빠져나가던 사도 베드로도 로마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퀘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다던가?

지난 주일날에도 유효한과 이누갈다의 유해가 모셔진 승암산(一名 치명자산)에는 많은 교우들이 참배하러 왔다. 오전에는 비가 내렸다. 그런 가운데 우산을 받쳐 들고 산을 오른 교우들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 불편한 가운데도 산을 오른 여자 교우도 있었다. 멀리 전라남도에서도 버스를 대절하여 숲정리와 치명자산을 찾기도 했다.

치명자산을 다녀와 버스를 타고 집에 오던중 어떤 여자 교우를 만났다. (그분은 나를 못보았을 것이다.) 그분은 마침 북덕방 아저씨와 땅을 보러 교외로 나가던 중이었다. 2년전에 시대 복판에 훌륭한 저택을 지었던 분인지라, 아침 나절에 비를 맞으며 산을 오르던 사람들과 대조되어 많은 생각을 낳게 했다. 대개 그런분들은 바쁘다고 말한다.

9월은 복자성월인데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다음 주일은 숲정리에서 순교자 현양대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바빠서 도무지 짱을 낼수가 없군요.
- 다음 주일은 친구들과 등산하기로 했는데요.
- 당신도 친구들과 어울려 나가다가 숲정리를 찾아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퀘바디스 도미네”하시겠지요?

숲 정 이 산책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시오.

(2) 숲 정 이

□김급 진단□



사제양성 후원회와 특별미사

□사제양성 후원회

우리 교구에 사제양성 후원회가 태동되어 움직임을 보인 것이 1972년 12월이었다. 창립총회를 가진 것은 금년 1월 1일이었다. 2,000만원의 목표로 시작된 이 좋은 운동이 4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13,399,805원이 청약되어 겨우 5,818,650원 (청약액의 43%)만이 교구에 불입되어 있다.

신년도 교구 예산 가운데 신학생 후원비가 11,500,000원을 점하고 있고 은퇴 신부님들의정양비가 8,400,000원으로 불입되어 있다.

신학생 양성이나 은퇴신부님들에 대한 노후대책은 신자된 우리들의 중대한 책무이다 목자없는 양떼는 생각만해도 몸서리 치지는 일이다. 청춘을 불사하며 양떼를 보살핀 목자의 노후대책이 어렵다는 일은 더욱 가공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제양성 후원사업에 대한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교구내 59,385명의 신자들이 한달에 10원씩만 성금을 내도 1년이면 7,126,200원이 되는데, 4년을 빼대어 모은 돈이 580만원이라니.....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제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미사 불입□

우리 교구는 지난 한 해를 “봉사하는 하느님의 백성이 됩시다”라는 대주제 아래 특별 목적을 위해 연 4회-구정, 승천축일, 추석절, 추수감사절-에 합동미사 불행하기를 권장했다. 그리하여 합동미사의 예물 전액은 순교자 기념관 건립 등의 특별목적을 위해 쓰기로 했다.

바람직한 일은 구정 미사에물 총액이 1백만원인데 추석절의 미사에물 총액은 198만원으로 거의 두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5만9천 신자가 미사에물을 백원씩만 불행한데도 그 액수는 590만원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놀라운 일 한가지는 840명의 임실본당이 구정에 6,340원, 승천축일에 65,600원 (교구에서 최고), 추석절에 78,300원으로 나타나 있다. 추석절에는 구정의 10배가 넘었고, 신자 1인당 거의 100원꼴의 불행을 한 셈이다. 임실 본당의 예는 교구내 모든 본당의 거울이 되어야 하겠다.

지구	본당	특별 미사 예물			사제양성 후원회비 불입현황
		구정	예수승천	추석	
제1지구	고창	10,500	10,200	32,150	—
	김제	37,200	—	84,300	50,000
	부안	6,800	5,470	34,820	—
	수류	—	9,600	23,840	—
	신태인	23,000	32,600	40,100	—
제2지구	정읍	36,700	18,600	69,000	500,000
	대야	34,850	7,500	38,000	—
	둔물동	52,000	15,000	130,000	697,000
	월명동	35,700	10,570	87,100	750,450
	중동	42,260	14,000	42,000	—
제3지구	함열	72,500	50,000	70,000	200,000
	화산	44,600	46,100	52,950	250,000
	고산	23,900	4,855	48,630	63,200
	금산	15,400	21,610	30,300	—
	삼례	—	—	—	173,000
제4지구	여산	25,000	15,000	17,000	—
	주현동	56,900	21,100	91,170	—
	창인동	71,100	34,300	92,410	200,000
	황등	32,400	25,100	40,000	150,000
	중양	83,735	—	168,900	—
제5지구	진동	82,200	63,400	215,900	507,000
	노송동	—	—	79,320	—
	북자	66,100	38,200	95,200	1,200,000
	서학동	62,400	52,550	73,650	250,000
	덕진	64,405	19,600	89,000	30,000
제6지구	무진장	11,400	7,580	20,600	100,000
	주안계	46,600	—	84,400	644,000
	14,000	22,450	28,700	—	
제7지구	임순남	6,340	65,600	78,300	—
	실창원	1,550	—	3,500	—
	23,200	9,200	26,300	54,000	
계		1,082,740	620,185	1,987,540	5,818,650

□ 신앙의 길잡이 □

경향잡지

구독료: 月 200원 (1년 선불은 2천원)

한국 천주교회가 67년동안 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발행해온 신앙의 길잡이인 경향잡지.

알고계시죠? 구독하고 계시죠? 아직도.....? 집집마다 1권씩 빠짐없이 구독하십시오.

구독 신청: (우편번호) 100 서울 중앙 우체국 사서함 16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경향잡지부

★ 교우 여러분의 뜻을 책임지겠습니다 ★

전일양복점

(舊 댄디 양복점)

전태권 (스티파노)

□오거리←→삼남극장중간 (교사동 1가 175번지)

□복자성월□

한 어린 아가씨의 영웅적 순교

김 영 구 신부

한국 교회사에 아직 그 유례를 두번 보지 못한 제일 나이 어린 한 아가씨, 이 봉금(아나다시아)의 순교행적으로 말하면 이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천사>의 이야기이다. 그는 이 성삼(바오로)과 김 아가다의 외동 딸이었는데, 기해년(1839) 대 박해에 전주옥에서 온갖 혹형을 갖추받고 영웅적으로 주를 증거한 후 그해 11월 10일 목졸려 순교하여 한국의 아네스라 불리운다.

이 봉금은 정해년(1827) 전라도 대교난으로 그 양친이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남후 태어났기 때문에, 순교시에 그 나이가 겨우 12세 될까 말까한 어린 동녀였다. 기해 박해에 그 아버지는 멀리 피신하여 그 종적을 감추매, 그 어머니를 따라 전남 광주 흥보루 다시요(洪粹榮) 집에 피난해서 살다가, 거기서 그 온 집안식구가 잡히는 동시에 그 어머니와 함께 잡혀서 전주 감영에 끌려와서 6개월동안 그 어린 몸에 갖은 형벌을 다 받고 목졸려 순교했다.

그런데 이 아나다시아 봉금은 나이 겨우 7~8세 때 벌써 4본문답, 조만과 기타 여러 경문들을 모조리 암송하고, 10세에 첫 영성체하는 특전을 입었던 것이다. (그때 성교법이 매우 엄격하여 마치 저 누갈다 행적에서도 볼 수 있는 것같이 15세 이전에는 좀체로 첫영성체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 통례였는데, 아나다시아가 겨우 10세에 이와같은 특권을 입은 것만 보아도 그의 총명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치명자중 최 연소자라 함은 국법에 의한 온갖 고문과 혹형을 받고 정식 사형언도로 순교했기 때문인데, 그가 겪은 혹형을 생각할 때 "이렇듯 어린 몸에 그같은 고문을 받아 드릴 곳이 어디 있었던고! 형구를 받아낼 몸은 못되었지만 그걸 이겨낼 힘은 간직했었고, 죽음이 무엇인지 채 알지 못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예비할 줄을 벌써 알았었고 그의 목을 내려치는 죄자수의 칼든 손은 떨리지만 그의 몸은 요지부동한 하나 잡박하지 않고 그 무서운 형벌중에 오직 양팔을 높이 들어 그리스도께로 몸을 향하니 형고를 당해 낼 몸은 채 못되었어도 승리를 거두기는 벌써 숙성한 어른이 다 되었다"라고 저 13세난 성녀 아네스의 순교를 예찬하던 성 암브로지오 주교의 말씀이 생각난다.

물론 우리 교회사에 유명한 복자 아우구스트 유진킬씨의 어린 아드님 유대철 페드로 복자도 스스로 몸을 바쳐 갖은 혹형을 받고 기해년 10월 31일 (즉 우리 동녀 봉금이보다 약 40일 앞섬) 목졸려 순교한 일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그는 우리 <작은 천사> 봉금이보다 적어도 두살위인 14세이었던 것이다. 아! 전주가 낳은 한국의 아네스!

요심이 (165)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 (야고버)

★ 교우 여러분께 특별활인 우대★

혹 · 칼라 · 출사환영

현대 사진관

전주 역전 오거리
전화 ⑤ 2 8 9

김 금 순 (테사)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 춘 자 (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 - 6 2 1 9

□회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렬 (아오스딩)
전화 ② 1 6 6 5

◎새물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지역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동 암 (모이세)

금암동 ③5614 군산 3032
다가동 ②4342 부안 736
전 동 ②2143 정읍 2157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교우들의 선물 센터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아세아 종합 스토아



강영옥 (로모알드)

남문 신탁은행 앞

전화 ②4007, ②7007

연탄

불러 주시던 언제라도

신속, 정확, 친절하게 배달함

이 영 희 (다두)

◎전주시 전동 성당 골목
(전화) ② 8 4 6 6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공지 사항 ※

1. 순교자 현양대회 (10월 3일, 순정이-해성학교에서, 전교구적인 합동미사-11시)
※ 전 분당은 순정이에서 합동으로 공식 미사를 지킵시다.
2. 허위 모금에 대한 주의: 항간에 김풍삼이라는 사람이 수원교구 후원인양 복자 유 베드로에 대한 영화를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교회기관을 다니며 모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원교구는 김풍삼을 후원, 추천한 사실도 없고 일체 교구와 상관없음을 밝혀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전북대학교 가톨릭 학생회 정기총회 급 추계 등반: ① 일시-10월 1일~3일까지, ② 장소-지리산, ③ 회비-2,000원. ※ 접수-가톨릭센터 대학생 사무실에서, 시간-목요일 5시~6시.
4. 울드레아 모임: (10월 2일(토) 오후 8시, 전동 성당)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사 보 좌 신부 이 종 원
사 도 회 장 이 상 봉

김인수, 김준삼(각 5천원), 한경자, 이철리, 서임석(5만원), 노대권, 김근래, 유한철, 정경우(각3만원) 최기원(1만 5천원), 김종환(8만원), 김병순(7천원) 육중기(9만원), 권희중(4천원). 누계 3,984,500원

1. 사도회 총회 (76년 결산보고 및 77년 예산심의) 공식 미사후 ※ 교문, 상임위원, 회장단, 구역장, 반장, 각 단체장님의 참석 바람.
2. 마돈나 꾸리아 주최 치명자 묘지 참배: 26일
◎ 각 L·M단원, 협조단원의 참석 바람
(준비: 성경책, 기도서, 묵주)
3. 대학생회 치명자 묘지 참배: 26일 공식 미사후
4. 다음 공식 미사후 77년도 첫 사도회 월례회
5. 방지거 삼회: 10월 3일 오후 2시30분
6. 성심 부녀회: 10월 1일(금) 10시 미사후
7. 여러분이 협조해 주신 도서석이 문을 엽니다. 미납된 책 대금을 납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 장 조 성 호

1. 사도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5시까지
◎ 사도회 임원, 구역반회장, 각 신심단체 간부님은 빠짐없이 참석 바람.
2. 미사 시간 변경(27일부터): 아침미사-새벽 6시, 저녁미사-오후 7시.
3. ★축★분당 신부님 영명<라파엘> 축일 9월 29일
◎ 축하합니다.

(노승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사도 회 장 조 해 형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 장 박 장 준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우회: 오늘 오후 8시 ※ 꼭 참석 하세요.
3. 첫 영성체 준비 교리: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 아직 첫 영성체 하지 않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은 이번 성탄때 첫 영성체를 영합시다.
4. 성시간: 30일(목) 오후 7시30분 ◎ 많은 참석 바람.
5. 첫 금요일 특별 미사: 10월 1일 저녁 7시30분.

1. 사도회 정기총회: 공식 미사후
◎ 사도회 임원, 각 공소회장님은 참석해 주십시오.
2. 10월부터 면접 실시: ① 대상-고해자 이상, ② 일시-각 반회합 날짜(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3. 반회합: 27일(월)-1반, 28일(화)-2반, 29일(수)-3반, 30일(목)-4반.
4. 25일 초.중.고등학생 치명자산에서 순례미사 갖음
5. 도장 공사 헌금: 장기호(7천원), 강봉환, 손홍열, 이성준(각 3천원), 강봉주, 임중구, 송기봉, 김둘래(각 2천원), 임덕수, 임화순, 김오재(각 1천 5백원) 진희옥, 신두자, 김성여(각 1천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 장 김 용 환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병 훈
사도 회 장 양 준 모

1. 사도회 확대회 총회: 76년 결산 및 77년 예산.
◎ 사도회 임원, 교문, 공소회장님, 구역회장, 반장, 각 신심단체장님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2. 가정 방문 및 반 미사 일정: 27일(월)-금암동 2반, 28일(화)-덕진동 1반.
3. 4지구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4. 신음조합 임원회: 10월 4일 12시.
5. 성당 신축 성금집입: 서성우(6천원), 유대홍(2만원) 현복철, 박규성, 김덕현, 유종근, 김완순, 신순이, 김우주, 유양오, 조용기, 오영열, 방나원, 최병철, 오철재, 김종남, 이장욱, 정병진(각 1만원), 원기만

1. 사도회 총회: 오후 2시.
2. 글라라 협제회: 오후 1시반
3. 예비자 등록: 가족 전체 신자화 운동.
4. 1주간 산상 미사: 새벽 6시반(분당 아침 미사없음)
5. 신심 단체는 사진및 1년행사 그리고 명단 제출 바람
6. 다음주 교구 전체 순정이에서 11시에 현양대회.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수 신 태 인 습	창 제 유 습	원	제 3 지구	주 협 동 창 인 동 황	30일 상임 위원회	73,750원
		꾸리아회, 교리교사 연합회 사도회 총회 76년 결산 및 77년 예산심의 청년회, 유아세례	30,280원 5,030원 3,300원 16,305원			유아 세례	6,660원
제 2 지구	대 문 울 등 중 합	사도회 정기총회	6,075원	제 4 지구	중 앙 노 중 동 전 자 서 학 동 전	사도회 총회	91,995원
		꾸리아회, 유아영세 가리마스 월례회 사도회 총회 성인 세례식 및 첫 영성체	62,190원 31,245원 17,070원 12,000원			재속 형제회 월례회 사도회 확대회 총회 사도회 정기총회 사도회 정기총회 사도회 총회	36,151원 17,035원 27,615원 20,810원 109,290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사도회 연례 회정	13,090원	제 5·6 지구	무 주 장 전 남 순 인 습	사도회 정기총회	원
		76년 결산 및 77년 예산심의 가정 방문 연례회 정기총회	17,980원 9,410원 15,135원			가 을 여 행(27일부터) 평신도 1일 연수회 사도회 공소 임원 정기총회	4,385원 7,490원 18,105원 원 원